

진짜가 나타났다... 외인 원투펀치 대박 조짐



◀ 가농



▶ 브룩스



TIGERS
플로리다 캠프

브룩스, 연습경기 선발 출전
5이닝 2피안타 9탈삼진 무실점투
최고 구속 152km...리허설 완벽 소화
가농, 불펜·라이브 피칭서 실력 입증
내일 연습경기 첫 출격
적응력·실력 겸비 시즌 기대감 상승

KIA 타이거즈의 새로운 '외국인 원투 펀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KIA의 새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가 11일 (이하 한국시간)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5이닝 9K의 탈삼진쇼를 펼쳤다. 최고 구속은 152km. 브룩스는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스 테리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플로리다 독립리그 연합팀과의 경기에 선발로 출격해 5이닝을 소화했다. 62개의 공으로 17타자를 상대한 브룩스는 2피안타 1볼넷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였다. 9개의 탈삼진도 뽑아내 눈길을 끌었다. 1회부터 탈삼진 3개로 3개의 아웃카운트를 채운 브룩스는 2회 선두타자 안타를 허용했지만 병살타와 4번째 탈삼진으로 이닝을 종료했다. 3회에도 KKK를 찍은 브룩스는 4회 선두타자까지 4타자 연속 탈삼진 기록을 이어갔다. 또 3루수 땅볼에 이어 4회 마지막 아웃카운트도 삼진으로 처리했다. 브룩스는 4회 2사에서 첫 볼넷을 허용했지만,

2루수 땅볼로 5회를 채우며 캠프에서의 위닝업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외국인 투수는 올 시즌 KIA 마운드 성적을 좌우할 주요 전력으로 꼽힌다. KIA는 지난해 터너와 윌렌드로 외국인 마운드를 구축했지만 15승을 얻는데 그쳤다. 외국인 원투펀치의 부진 속에 어려운 시즌을 보냈던 KIA는 올 시즌에는 '윌리엄스 후광 효과'를 앞세워 버리기 출신 브룩스, 드류 가농을 영입해 새 전력을 구성했다. 일단 두 선수는 팀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새로운 리그 데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어로 능숙하게 인사를 하는 두 사람은 "빨리 한국에서 다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며 새 문화에 스스럼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이라는 구심점도 이들의 새로운 도전에 큰 힘이 된다. 마음 편하게 시즌 준비가 전개되면서 그라운드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

특히 브룩스는 지난 2월 23일부터 마운드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5차례 실전 점검을 하고, 2020 시즌 준비 리허설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가농도 팔 뭉침으로 실전 등판이 늦어졌지만 완벽한 몸상태를 우선으로 해 차근차근 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 불펜 피칭, 라이브 피칭 등을 통해 이미 실력을 보여준 가농은 13일 마침내 마운드에 오르게 된다. 가농은 이날 연습경기에 출격해 실전감각을 점검하고, 시즌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할 예정이다. 착실하게 새 리그 데뷔전을 준비해온 '새 외국인 듀오'는 캠프단과 함께 입국해 새로운 환경 적응에도 나선다. 코로나19 사태로 입국을 늦춘 외국인 선수들도 있지만 프레스턴 터커와 함께 KIA의 두 외국인 투수는 캠프단의 귀국길에 동행, 새로운 안방에서 동료들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wool@kwangju.co.kr

김재현·봉중근 해설위원 합류 KBO, 전문위원회 구성 완료



김재현 봉중근

김재현·봉중근 해설위원이 새로 합류한 2020 KBO 전문위원회가 구성됐다. KBO는 11일 "올 한해 공정하고 원활한 리그 운영을 책임질 2020년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2020 도쿄올림픽에 대비하는 국가대표팀 기술위원회에서는 김시진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열 SBS스포츠 해설위원, 박재홍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이승엽 KBO 홍보대사가 연임한다. 김재현 SPOTV 해설위원, 봉중근 KBS 해설위원은 신임 기술위원으로 합류했다. 김 위원은 국가대표팀 코치스태프로서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지도한 경력이 있고, 봉 위원은 국제무대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대표팀 전력분석원으로 활동했다. 김용희 위원장과 함께 김시진, 한대화, 임재섭 위원은 경기운영위원회 활동을 이어간다. 여기에 박종훈 전 한화이글스 단장이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퓨처스심판육성위원회에서는 기존 오석환 위원과 함께 도상훈 전 KBO 심판위원장이 신임 위원으로 활동한다. 규칙위원회는 유남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허은 심판위원장, 김태신 기록위원장, 박휘용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야구 심판팀장으로 구성된다. 최원현 법무법인 KCL 대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상벌위원회에는 기존 민경삼 KBO 자문위원,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과 함께 김재현 변호사(김재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김기범 교수(경향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신임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여울 기자 wool@

'위조 여권 사용' 호나우지뉴 교도소 풋살대회 출전하나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구속된 브라질 축구 스타 호나우지뉴(39)가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그들만의 월드컵'을 펼칠 수 있을까. 브라질 신문 '엑스트라'는 11일(한국시간) 호나우지뉴가 수감된 파라과이 아순시온의 교도소에서 풋살대회가 열린다고 보도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이 대회에는 194명의 수감자가 10개 팀으로 나눠 우승 경쟁을 벌인다. 호나우지뉴가 체포되기 전 이미 예정됐던 대회여서 출전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다. 다만, '깜짝' 참가해 '외계인 드리블'을 펼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 보인다. 블라스 베라 교도소장은 엑스트라와의 인터뷰에서 "호나우지뉴가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꼭 참석해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대회를 즐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들만의 월드컵'은 범죄자 신세가 된 잉글랜드의 스타 축구선수가 교도소에서 재소자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대회에 나서는 내용의 영국 영화다. 호나우지뉴는 지난 4일 형 호베르투와 파라과이 국적의 위조 여권을 가지고 파라과이에 입국했다. 입국 당시엔 위조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다가 몇 시간 뒤 적발돼 호텔에 들이닥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6일 구속돼 수도 아순시온의 교도소에 수감됐다. 1998년 브라질 그레미우에서 프로로 데뷔한 호나우지뉴는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FC바르셀로나(스페인), AC밀란(이탈리아) 등 명문 팀에서 활약하면서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상(2004, 2005년), 발롱도르(2005년) 등을 수상했다. 호나우지뉴는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의 우승에 앞장섰다. /연합뉴스

손 못쓴 토트넘, 챔스리그 8강 탈락

손흥민 부상 후 전력 급속 악화...이강인 결장한 발렌시아 16강서 고배

이강인이 결장한 발렌시아(스페인)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또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토트넘(잉글랜드)도 8강 진출에 실패했다. 발렌시아는 11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메스타야에서 열린 2019-2020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아탈란타(이탈리아)에 3-4로 패했다. 1차전에서 1-4로 졌던 발렌시아는 1, 2차전 합계 4-8로 뒤져 16강에서 탈락했다.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강인은 끝내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관중 없이 치러진 이날 경기에서 두 팀은 난타전을 펼쳤다. 전반 3분 만에 아탈란타의 요시 일리치치에게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준 발렌시아는 전반 21분 케빈 카메이로가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전반 34분

일리치치에게 또다시 페널티킥 추가골을 허용했다. 전반을 1-2로 마친 발렌시아는 후반 6분 게이 라가 헤딩으로 동점골을 쏴 승부의 균형을 맞췄고, 후반 22분 페란 토레스의 역전골까지 터지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발렌시아는 후반 26분 아탈란타의 일리치치에게 통탄의 동점골을 내준 뒤 후반 37분 또다시 일리치치에게 결승골까지 허용하며 무너졌다. 아탈란타의 알리치치는 혼자서 4골을 쏟아내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한편, 손흥민이 오른쪽 팔 골절상으로 전역에서 빠진 토트넘은 라이프치히(독일)에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권을 내줬다. 토트넘은 이날 독일 라이프치히의 레드불 아래에서 치러진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0-3으로 완패하면서 1, 2차전 합계 0-4로 무릎을



"8강 탈락 믿을 수 없어" 조제 무리뉴(오른쪽) 토트넘 감독이 11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팀이 패배해 안타까워 하는 루카스 모우라를 위로하고 있다. 토트넘은 이날 0-3으로 패배해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풀고 8강 진출권 확보에 실패했다. 단 토트넘은 전반 10분 만에 일찌감치 결승골을 내 주면서 0-3 완패를 당했다. /연합뉴스